

비창 4강 논증의 구조

<<이 강의의 목적: 논증의 구조를 파악하는 감수성 신장>>

1. 논증의 기본 구조 파악하기

1) 전제와 결론을 분명하게 판별하라.

① 결론이 논증의 어디에 위치하고 무엇인지 식별한다.

②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가 무엇인지 조사한다.

<요령> ① 결론은 보통 논증의 첫머리에 또는 끝부분에 위치한다

② 결론을 찾기 위해 결론 지시어를 찾는다.

③ 결론 지시어가 없으면 전제 지시어를 찾아 역이용한다.

④ 논증에서 생략된 전제를 감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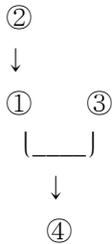
<예제 1>

① 돈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왜냐하면 ② 돈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기 때문이다. 그런데 ③ 가장 좋은 것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④ 돈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대이교도 대전[對異教徒 大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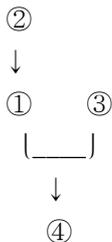
☞ 원문자: 논증을 구성하는 명제나 문장을 표시

☞ → : 전제와 결론 또는 근거와 주장 사이의 관계를 지시하는 표시

☞ (): 두 전제의 병합을 지시하는 표시



② 돈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고, 단지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따라서 ① 돈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런데 ③ 가장 좋은 것[최고선]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④ 돈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최고선]은 아니다. (도식화/구조화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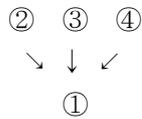
<논증 구조 분석>

⇒ 논증 1=②+①, 논증 2=(①+③)+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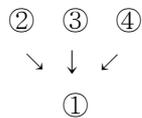
⇒ 전체 논증=두 개의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증은 두 개로서 결론은 두 개(①,④)이며 그 중 최종 결론은 한 개(④)이다.

<예제 2>

① 이제는 ‘토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가발전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우선 ②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토건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미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두 배가 넘는 20%에 가까워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게다가 ③ 과도한 토건업으로 인한 난개발은 좁은 국토를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④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국가발전 정책의 기본 전략은 건설과 개발 중심의 고탄소 적색 성장이 아니라, 환경과 보존 중심의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선 ②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토건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미만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그 두 배가 넘는 20%에 가까워 개발도상국 수준이다. 게다가 ③ 과도한 토건업으로 인한 난개발은 좁은 국토를 상처투성이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④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국가발전 정책의 기본 전략은 건설과 개발 중심의 고탄소 적색 성장이 아니라, 환경과 보존 중심의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① 이제는 ‘토건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국가발전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논증 구조 분석>

⇒ 논증 1=②+①, 논증 2=③+①, 논증 3=④+①

⇒ 전체 논증=세 개의 논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증은 세 개이지만 결론은 세 개 아닌 한 개다.

2)전제와 결론을 자연스럽게 배치하라.

①전제는 추론이 진행되는 자연스러운 순서를 따라 배열한다.

②전제는 사고가 전개되는 질서를 흐트러거나 꼬이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배치한다.

<요령>①“전제(의 내용), 그러므로 결론(의 내용)” 순으로 사고가 따라가도록 배치한다.

②사고의 전개 방향이 전제에서 결론이든, 결론에서 전제이든 여하튼 그 순서를 일관되게 견지하고 헛갈리지 않도록 배치한다.

▲최종가르침: 전제와 결론을 일목요연하게 구조화하고 자연스럽게 적절히 배치하라.

<적용 1>

- ① 대중예술인은 대중문화인이다.
소녀시대는 가수이다.
예능인은 대중예술인이다.
가수는 예능인이다.
따라서 소녀시대는 대중문화인이다

- ② 대중예술인은 대중문화인이다.
예능인은 대중예술인이다.
가수는 예능인이다.
소녀시대는 가수이다.
따라서 소녀시대는 대중문화인이다.

- ③ 소녀시대는 가수이다.
가수는 예능인이다.
예능인은 대중예술인이다.
대중예술인은 대중문화인이다.
따라서 소녀시대는 대중문화인이다.

<적용 2>

④ 이혼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데, 하나는 결혼 후에 드러나는 부부간의 심각한 성격 차이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우연히 일어나는 부부간의 과격한 충돌 때문이다. 부부간의 과격한 충돌은 따지고 보면 대부분 사려 깊은 분별력 부족 때문이다. 심각한 성격 차이도 연애 기간 동안 사려 깊은 분별력을 발휘하여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처신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랑에도 사려 깊은 분별력의 발휘와 같은 합리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⑤ 이혼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발생하는 데, 하나는 결혼 후에 드러나는 부부간의 심각한 성격 차이이고 다른 하나는 우연히 일어나는 부부간의 과격한 충돌이다. 부부간의 심각한 성격 차이는 연애 기간 동안 사려 깊은 분별력을 발휘하여 상대를 제대로 이해하고 처신했더라면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과격한 충돌도 따지고 보면 대부분 사려 깊은 분별력 부족 때문이다. 따라서 사랑에도 사려 깊은 분별력의 발휘와 같은 합리적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2. 논증에서 생략된 명제 찾기

1)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나 문제가 없는 주장들은 논증에서 흔히 생략된다.

- ① 논증의 정확한 구조 파악을 위해서 생략된 부분을 복구할 필요가 있다.
- ② 전제와 결론의 정당성 또는 건전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생략된 부분을 드러내야 한다.

<사례>

- ① 저 개는 투견(鬪犬)이 아닌가? [투견은 일반적으로 강한 턱을 갖고 있다.] 틀림없이 강한 턱 근육을 갖고 있겠지.
- ② 투견은 보통 강한 턱을 갖고 있으니, [저 개는 투견이다.] 저 개도 틀림없이 강한 턱 근육을 갖고 있겠지.

- ③투견은 보통 강한 턱을 갖고 있는 법인데, 저 개는 투견 아닌가? [저 개도 강한 턱 근육을 갖고 있다.]
- ④민경: 신신대학교 학생들은 졸업 후 취업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것 같아. 내가 그 대학교 학생 근 백 명에게 물어 봤거든. [그리고 그들은 그저 평범한 그 대학교 학생들이었어.]
- ⑤“[만약 내가 돈에 눈먼 자라면 나는 돈을 잃을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돈에 눈 먼 자 이겠다.] 내 재산을 잃을 관인데(즉 나는 돈을 잃을 짓을 하지 않는다), [나는 돈을 잃을 짓을 하지 않는다. 붕괴 위험을 알고도 영업을 하는 것은 돈을 크게 잃는 것이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즉 나는 붕괴 위험을 알고도 영업을 하지 않는다) (1997년도에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때 돈에 눈이 멀어 붕괴 위험을 알고도 영업을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하는 수사관에게 사장이 대답한 말)

③ 논증에서 생략된 부분을 복원할 때 자비의 원리(Principle of Charity)를 적용한다.

<사례>

- ①“이 친구, 너 대한민국 군인 아닌가? 왜 이리 여전히 박력이 없어?”(준용이가 휴가 나온 학우 창열이에게 던진 말)

⇒대한민국 군대에 가면, **모두** 박력이 생긴다.

너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따라서 이제 너도 당연히 박력이 있어야 한다. (창열이가 복원한 정식 논증)

⇒“야, 군대 간다고 모두 박력이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창열이가 보여준 반응)

⇒대한민국 군대에 가면 박력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너는 대한민국 군인이다.

너도 박력이 생겼을 수 있어.(자비의 원리에 따라 복구된 창열이의 정식 논증)

<Note> 자비의 원리→허수아비 논증/허수아비·허수아비 공격·허수아비 논증의 오류: 상대방의 주장을 쉽게 공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거나 악의적으로 왜곡한 후 그것을 공격하는 형식의 논증

②“국가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많습니다. 국가보안에 꼭 필요한 사항은 형법에 포함시켜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회의원 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당신의 주장은 공산주의를 수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공산주의가 인류의 역사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쳐 왔는지 아십니까?”(국회의원 김○○)

⇒허수아비 논증 구성/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④생략된 부분을 사용해서 논증을 만들고자 할 때는 선결문제요구의 오류를 피해야 한다.

<사례>

①[안락사는 살인이다] “살인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락사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안락사가 살인 행위인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문제로서, 이를 참된 전제로 받아들여서는 결론을 지지할 수 없다.

⇒선결문제요구의 오류, 논점 선취의 오류, 부당 가정의 오류, 거지 논법.

<Note>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증명을 요하는 사항(논점)을 전제로 사용하거나 옳은 것으로 가정하는 오류

▲최종가르침: 논증의 정확한 구조 파악을 위해서 생략된 명제를 유의하라.

▣ 과제물 부과: 교재 제4장 “§3. 감정과 행동에서 생략된 전제들”을 읽은 후, 나의 논증 구성과 구조 파악 활동에서 어떤 태도로 임할 것인지를 반성하시오-나의 일상 생활에서 논리적 비판적 사고의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비추어서 점검해 볼 것.